

Asahi, TFT-LCD 구미공장 증설

Asahi Glass, 1억5000만달러 투자 ... 친환경 무알칼리 생산 확대

일본 Asahi Glass가 무알칼리 TFT-LCD를 생산하는 구미공장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.

경북도 등에 따르면, Asahi Glass 구미공장의 이노우에 시게쿠니 사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,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월27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Asahi Glass는 TFT-LCD(Thin Film Transistor-Liquid Crystal Display) 패널 수요가 연평균 10% 이상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제품인 무알칼리게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2000억원의 매출 증가와 신규채용 130명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Asahi Glass는 자동차 유리 및 평판유리의 글로벌 메이저로 군림하고 있으며 2009년 매출이 1조1480엔에 달했다.

김관용 경북도지사는 “구미공단 4개 공장에 총 10억달러를 투자한 Asahi Glass가 5년간 1억5000만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”면서 “사후관리팀에서 여러 해외 투자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투자를 계속 유치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7>